
단 하루만에 드러난 김문수 후보의 공천 개입 본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월 25일,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당헌 개정 약속으로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김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명의 당협위원장 다음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약속 확실하게 신속하게 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특정 인물들에게 공천을 보장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자, 스스로 내세운 ‘대통령 공천 개입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사천(私薦) 공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으로, 박근혜 정부의 ‘진박 공천’, 윤석열 정부의 ‘친윤 공천’이 빚어낸 국정 실패를 재연하겠다는 예고편에 다름없습니다.

내란 세력인 김 후보가 공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믿겠습니까?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대통령이나 특정 계파가 이를 좌지우지하는 순간, 당은 공정성과 자율성을 잃고 사유화의 길로 접어들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본심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모든 국민의 단호한 심판뿐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